

미·일 공동비전 성명과 한국외교의 선택

‘미일 공동비전 성명’과 미일동맹의 현주소

지난 4월 28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미일관계가 적대관계에서 ‘부동(不動)의 동맹(unshakeable alliance)’으로 발전했다고 규정짓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미일방위지침 개정에 의한 ‘동맹의 변혁’, △오키나와 미군의 재배치 등 주일미군의 재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의 조기타결 등을 골자로 하는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했다.

하루 전날에는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과 일본의 외상, 방위상이 만난 2+2전략대화 성명을 통해 평시, 유사시, 주변유사시의 종래 구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영향사태’를 추가한 「2015 미일 방위지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섬) 분쟁을 상정한 ‘섬 지역 방위’와 우주 및 사이버 분야에서의 미일 협력을 명시하였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2015 미·일 방위지침」의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할 때 사람들은 (일본이) 미국이 벌인 전쟁에 휘말려들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지난 55년의 역사는 그 비판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했다”고 대답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용의자로 3년간 옥살이를 했고, 미일안보 조약의 개정을 밀어붙이다 국민의 비판을 받고 사임했던 자신의 외조부 기시(岸) 총리의 행보를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4월 29일에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 의회 상하양원 합동연설을 했다. 예상대로 아베 총리는 이 연설에서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태평양전쟁 피해국가들에 대한 사과도 종군위안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 대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미일동맹이 격상되었음을 강조하고, 올 여름까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답했다. 이것이 바로 미일동맹의 현주소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미완의 과거사 청산

그렇다면 최근 들어 미국이 일본의 우경적 행태를 두둔하며 보통국가화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적 키워드는 아시아로의 회귀이며, 그 전략적 중심에는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국가화를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로 전략적 무게중심을 옮겨오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이미 「2014년 판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일본에 대한 ‘미완의 전후처리’로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특징은 하버드대 동양사 교수출신이자 1960년대 주일 미 대사를 지낸 라이샤워 교수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전후 미국은 중국의 공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한국 등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보다 공산화된 중국에 대항하는 거점으로써 일본의 가치를 재발견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에서 나찌즘 청산을 시도했던 유럽의 경우와 다른 태도를 취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천문학적인 물질, 인적 피해를 초래한 나찌즘의 유산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를 원했으며, 이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전후처리보다 중국의 공산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사 청산을 ‘미완’으로 남긴 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일본을 전범국에서 미국의 동맹으로 재탄생시켰다.

미국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무장해제된 일본을 자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두는 「(구)미일안보조약」을 제정했고, 1960년 개정된 「(신)미일안보조약」을 통해 미일관계를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이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로 회귀하면서 미국은 다시금 일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통해 ‘부동의 동맹’으로 다시 한 번 격상시킨 것이다.

‘미일’관계의 변화는 2015년 5월 21일,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미일 공동비전 성명」에서 잘 드러난다. 이 문건은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무역, 그리고 환경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이 문건은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무역, 그리고 환경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무역, 그리고 환경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무역, 그리고 환경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무역, 그리고 환경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4월 22~23일 210 0000 00 910 0 000 00 0000 00000

000 0000 000 00 000 0 0000 '00'0 000

000 000 00 000 00 000 000 00 (self- directed

00 000 0000 0000 0000 0000 00 000 000 0000

0 0000 000 0000 0000 0 00000 000 000 00

